

동네에 어울리는 열린 성당을 꿈꾸며

가회동성당

우대성·조성기·김형중
건축사사무소 오퍼스 공동대표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2014 서울시건축상 최우수상
시민공감건축상
2014 대한민국한옥공모전 올해의 한옥상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30-3
지역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용도	종교시설
대지면적	1,150.30㎡
건축면적	672.59㎡
연면적	3,738.34㎡
건폐율	58.4708%
용적률	117.944%
층수	지상 3층, 지하 3층
구조	철골조, 목구조

설계담당

양군수, 김종도, 윤종원, 이상대, 최은림, 최성원

시공사

(주)평화종합건설 | 로하스 한옥

건축주

(재)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가회동성당과 북촌 풍경



가회동성당



가회동성당



가회동성당 안마당과 본당
가회동성당 한옥 마루



加會洞成堂 전경



자연 재료의 조화가 느껴지는 외부 풍경





© 2014
R&B

좌·상 가회동성당 내부
좌·하 가회동성당 대성전
우·상 가회동성당 외부
우·하 가회동성당 외부



© 2014
R&B



누구나 들어와
쉬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곳.

문과 길만
열어두기보다는
머물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까지
열려있는 곳.

가장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
활짝 열려있는
마을 성당을 꿈꾼다.





© 2014
R&B
R&B

가회동성당을 거니는 사람들

• **구경하고 싶은데 들어가 봐도 돼요?**

- 당연히죠. 그러라고 지은 집인걸요.

익산에서 천주교 순례길을 돌아보러 온 부부를 만났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지만 약간은 어수선하다. 성당을 둘러보는 데 큰 지장은 없다. 마당을 거쳐 옥상까지의 길을 안내한다.

“이런 데도 있었군요. 인터넷엔 안 나오던데…”

가회동성당은 천주교 서울순례길 2코스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성당의 앞길은 4차선으로 북촌(北村)에서 가장 넓은 도로다. 옛 한옥 길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다. 지구단위계획조차 개발을 전제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며, 3m 건축선 후퇴까지 지정된 땅이다. 가로변에 새로 짓는 건물은 모두 크다. 북촌과 가회동이 관심을 받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옛 풍광은 아련하게 사라진다. 크고 화려한 건물 뒤로 작은 집들은 숨어든다. 동네 생활도 바뀐다. 방문객이 많아지니 고요함과 프라이버시가 방해를 받아 하나 둘 동네를 떠나고 카페와 박물관 숫자만 늘어나고 있다.

• **정말 성당인가요?**

- 그럼요. 길에서 바라보면 십자가도 종탑도 보이지 않지만 한국 천주교회의 첫 미사가 열린 북촌을 관할하는 의미 있는 성당이에요.

그렇지만 종교적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소박한 북촌의 풍경에 어울리고 싶다. 상징적인 건물이기보다는 동네의 의미 있는 장소이기를 꿈꾼다. 이곳은 성당 신자와 순례하는 천주교방문객, 북촌을 보러온 관광객 모두를 생각해야 하는 곳이다. 동네에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까지 관광객이 가득하다. 하지만 카페나 상점을 제외하고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공공을 위한 화장실도 드물다. 공공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는 성당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열린 성당을 꿈꾼다. 누구나 들어와 쉼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곳. 문과 길만 열어두기보다는 머물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까지 열려 있는 곳. 가장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 활짝 열려 있는 마을 성당을 꿈꾼다. 그러나 실제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내 집에 다른 이가 무시로 들어온다는 것. 아무리 성당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건축주의 동네에 대한 생각과 열린 마음이 이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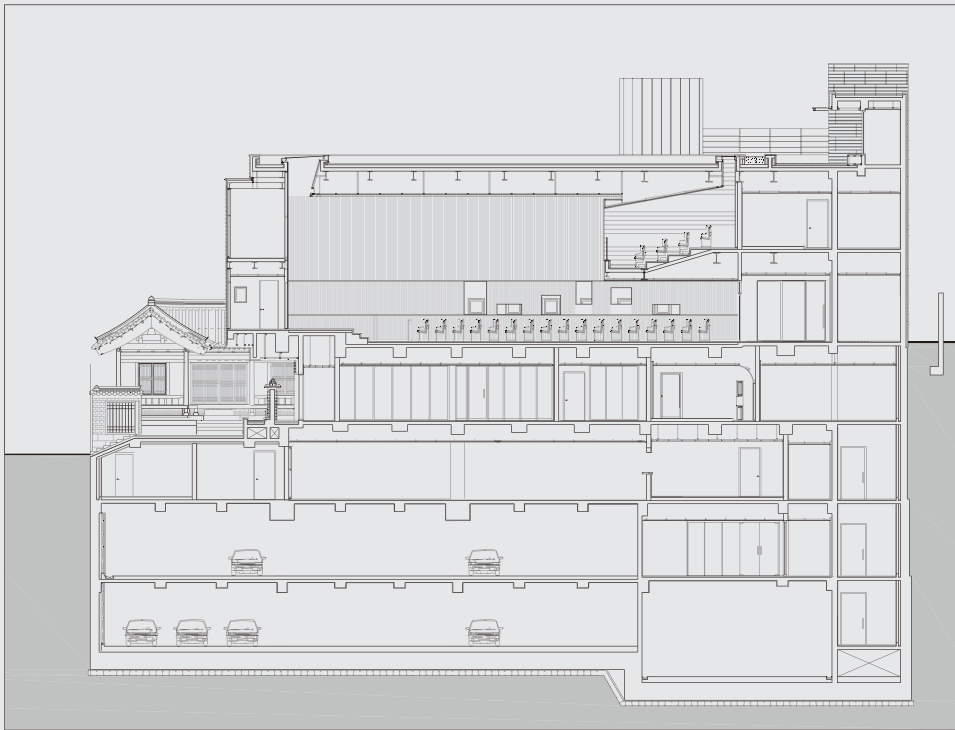
© 2014
R&B



가회동성당과 북촌 풍경



가회동성당
지형
배치도



가회동성당
단면도

을 가능하게 한다. 신자들만 쓰는 곳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 가톨릭의 정신과도 닮았다.

아침 시간이면 중국 관광객들이 성당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고, 한옥 누마루에는 커피 한 잔을 느긋하게 마시는 관광객과 직장인이, 마당에는 성당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사람들이 붐빈다. 옥상에는 펼쳐진 북촌의 파노라마 풍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드나드는 곳이 되었다. 성당은 지은 지 1년 만에 동네에 잘 스며들었다.

© 2014
P&P
128



성당 본당과 안마루

- **이렇게 넓은 성당인지 몰랐어요.**
- 밖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죠? 대부분 지하 공간이라 그래요.

1,100평 남짓 되는 성당은 이 동네에서는 아주 큰 프로그램이다. 높이 규제가 있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짓는다면 동네의 풍광을 거스르는 공룡이 될지도 모른다. 20~30평의 작은 집이 웅기 종기 모인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풍광을 거스르지 않을까. 풍광을 되살릴 수는 없을까.

우선 건물을 3개로 나눈다. 그렇게 하니 좀 작아졌다. 프로그램의 3분의 2를 땅에 묻는다. 빈 땅이 생겼다(물론 암반으로 혹독한 대가도 함께 따라왔다). 건물보다 마당을 먼저 배치한다. 한 가운데. 마당 주위로 한옥, 성전, 사제관을 두른다. 마당이 집의 중심이 되는 배치 방식은 선조들의 일반적인 방식이자 이 동네 한옥(대부분 1920~1930년대 대량 공급하기 위해 지어진 한옥이다)의 배치방식이기도 하다. 도로변에는 낮은 한옥을 두고, 덩치 큰 성전과 사제관은 도로에서 멀리 둔다. 그렇게 하니 주변을 조금 닮았다.

- **길이 계속 연결되어 있네요? 어디까지 갈 수 있죠?**
- 다섯 개의 마당이 이어져 있고요. 옥상까지 갈 수 있어요.

마당을 만들고 마당의 성격에 따라 이름을 붙였다. 각각 다른 움직임과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다른 분위기는 다른 마음가짐을 만든다. 경사지 땅을 살짝 들어올린 안마당은 아래쪽에서 들어가는 지하마당을 넉넉하게 하면서 큰 도로와 조금은 떨어지고 싶은



가회동성당



가회동성당 한옥 마루
가회동성당 하늘마당

육구다. 누마루를 통해 두 마당은 하나로 연결된다. 아랫마당 문을 열면 내부와 외부의 경계 없이 하나로 쓸 수 있다. 아랫마당과 이어진 식당은 매주 결혼식 피로연 장소로 쓰인다.

가회동성당을 처음 방문한 일요일. 신자들은 주일 미사 후 모두 같이 식사하고 있었다. 다른 성당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다. 이런 일상의 작동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놓였다. 조용하고 한층 아래에 있는 마당. 지하층이지만 아무도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성당 외벽의 하얀 돌에 반사된 빛이 넉넉하게 들어오기 때문이다.

마당 가득한 관람객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 하지만 성스럽고 조용한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은 성당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성전 입구를 제일 안쪽으로 돌린다. 먼 길을 돌아가는 계단은 떠드는 소리를 희석시키며, 기도하러 가는 성전까지 차분하게 준비하는 작은 여정이 된다. 마당의 관람객과도 거리가 생긴다. 바닥은 거친 돌로 마감한다. 천천히 걸게 되면 소리가 줄어든다. 마당은 외부행사가 함께 있는 성당의 전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안마당은 일주일에 한 번 한옥에서 하는 미사의 좌석으로 이 미 쓰이고 있다.

계단 끝엔 세 번째 마당이 있다. 길의 연속이지만 성전을 오가는 숨 고름이 있는 연결마당이다. 뒤를 돌아보면 동네의 한옥 풍광이 마당 너머에 담긴다. 성전 홀에 서면 성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관람객과 미사 시간에 늦게 도착한 신자가 만나는 홀의 모습이다.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스스로 발소리를 낮추게 된다.

옆집 뒷마당을 볼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옆에 있다. 담을 헐면 서덤으로 얻은 호사다. 한 걸음 남짓하나 바위언덕과 어우러진 숲을 마음껏 볼 수 있으니 넉넉하다. 선조들은 이런 ‘차경’으로 공간을 확장시키고 집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 지혜를 빌렸다.

다섯 번째 하늘 마당이 으뜸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을 오르면 문이 열리는 순간 가회동의 펼쳐진 풍광을 보게 된다. 남쪽으로 남산과 서울타워가 보이고, 나머지 3면은 북촌의 한옥 지붕이 파노라마로 이어져 있다. 가회동의 풍광을 아무 대가 없이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건축은 그 발판이 된 곳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곳에

오르면 모두 침묵 속에 서터를 누르기 바쁘다. 모르는 사람에게 옥상까지 집을 개방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성전의 빛이 참 좋아요**

- 낮엔 햇빛만으로도 충분해요.
성전의 경건함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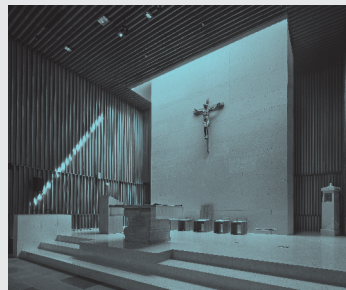
성전은 크지 않다. 300명을 위한 장소. 늘 열려 있으니 누구나 자기 리듬에 맞춰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성전 내부는 인공조명 없이 기도하는 경건함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대 쪽 하얀 벽에 반사된 빛이 내부를 밝힌다. 부족하지 않다. 낮에 제대벽 십자가를 비추는 천창 빛의 움직임에 신자는 고개를 들게 된다. 성전 뒤 성가대 자리 위에도 햇살이 들어오는 곳이 더 있다. 성전 평면은 마름모꼴 비대칭이다. 땅의 형상을 따랐다. 이를 눈치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제대 중앙의 밝은 빛과 좌우가 다른 창문 형태로 시선의 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 **새로 지은 건물인데 낫설지 않아요.**

- 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느껴지도록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자연재료를 만들었어요.

새로 건물을 지으면 동네에는 ‘생경함’이 함께 생긴다. 오래된 터에 들어온 낯선 손님처럼. 새로 지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느낌이고 싶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그 느낌이 그대로이고 싶다. 돌과 나무를 주요 마감 재료로 선택한 이유다. 자연재료는 거부감이 적다. 느낌을 만들기 위해선 섬세함이 따라야 한다. ‘질감(Texture)’으로 해결한다. 외벽에 사용한 큰 돌판은 수평으로 골을 파서 벽에 걸었다. 30여 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기존 성당의 석재의 색상과 크기대로. 오픈조인트라야 시간이 지나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코너는 통돌을 깎아서 덩어리 느낌을 살린다. 한옥 담장도 돌의 종류를 같이 맞춘다. 사람이 눈높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은 나무를 쓴다. 한옥, 외벽, 성전 내부. 나무무늬를 붙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나무’다.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레 색이 바랄 것이다.

© 1998



가회동성당 대성전



© 2014



자연 재료의 조화가 느껴지는 외부 풍경
가회동성당 한옥의 내부

• 이곳에는 꼭 한옥을 지어야 하나요?

- 아니요. 법적인 이유는 없어요.
이곳 풍광을 담은 한옥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북촌에서 한옥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동네 풍경을 담은 한옥을 생각한다. 골목 안쪽 주택지는 한옥을 지어야 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흥내만 낸 한옥이 아닌 진짜 한옥을 짓고 열린 성당의 시작점으로 삼는다. 도로변에 한옥을 배치해서 가회동 풍광의 연속을 꿈꾼다. 대로변 한옥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며(성당임을 가능한 한 드러내지 않도록), 이미 풍경을 잃어버린 큰길의 한옥 풍광이 회복되고 연결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옥은 자유로운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과 창을 변화에 따라 풍경이 변화하고, 내외부의 경계가 사라지며, 머무르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작은 이야기가 꽃피기도 하고, 축제의 장이 되어 흘러넘치는 변화무쌍한 공간이 된다. 열린 한옥에서 우리는 눈과 마음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의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함께 누려야 한다. 한옥은 열린 사랑방으로 방향을 잡는다.

• 한옥 짓는 일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 한옥을 독립적으로 지으면 여러 가지 받는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식 건물과 함께 짓게 되면서 두 배로 복잡하고 힘들어졌어요.

복합 건물로서 한옥을 짓는 어려움은 우선 현재의 일반적인 건축물에 적용되는 모든 법적 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옥이 법적으로 누려온 혜택은 한옥의 보급과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로운 기능과 프로그램이 접목되는 현대 건축물로서 한옥은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가회동성당의 경우 마당을 중심으로 현대 건축과 한옥을 마주 보게 하였다. 한옥 건축에 혜택을 주던 조항들도 복합 건물에는 적용 조항이 하나도 없다. 덕분에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이전에 한옥에 요구되지 않았던 건축적 해법을 찾아야 했다. 에너지 절약



을 해야 하는 건물의 단열이나 설비, 소방시설, 난간 설치 등 법적 인 요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옥에 적용 가능한 창호와 설비는 물론 스프링클러와 같은 기술적 장치들이 건축가의 연구 대상이 된다. 단열이 잘되는 시스템 창호가 설치되고 천장은 중간 부분에 에어컨, 스프링클러, 조명을 설치한다. 중앙을 제외한 부분은 서까래를 노출하니 아쉽지만 해법이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완공된 사랑채는 외형상으로는 여느 한옥과 다르지 않지만 비로소 오늘날의 생활 중심 공간으로 한옥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 많은 건축상을 받았네요. 더 유명한 장소가 될 것 같아요.
- 추기경님께서 지난 부활절에 건물을 축성했고, 다양한 건축상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다섯 마당과 한옥, 성전 공간 모두가 신자는 물론이고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잘 쓰여야 ‘좋은 장소’가 된다. 그러기 위해 이 건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추기경님의 축성과 다양한 건축상, 언론의 관심으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성당의 불편함도 같이 생겼다. 건축주는 힘들지만 묵묵히 동네의 성당이 되도록 마음을 열고 있다. 멋진 행보다. 더 잘 그리고 늘 쓰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큰길에서 만나는 사랑채의 모습이 가로와 한옥 풍광이 회복되고 연결되는 초석이 되길 기대했는데, 도로 건너편에도 그 뜻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다행이다.